

수성이나 물갈이나... 본선보다 치열한 민주당 경선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경선 대진표 모두 확정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전략공천

이개호, 최고위서 단수공천 확정

오는 4월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확정안이 이뤄짐에 따라 앞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남지역 일부 선거구에 대한 경선 후보를 확정·발표하면서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 8개 선거구는 공천 작업이 모두 완료돼 현재까지 5곳(동남갑·동남을·북구갑·북구를·광산을)의 경선 후보를 마쳤다.

동남 갑에서는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보가 현역 운영역 의원을 꺾었고, 동남 을 선거구에서도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병훈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북구 갑은 정준호 변호사가 조오섭 의원을 앞섰고, 북구 을도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형석 의원을 제쳤다.

광산 을 선거구는 유일하게 현역인 민형배 의원이 3인 경선에서 승리했다. 민 의원은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부대변인과 정재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간 3인 경선을 치렀다.

광산 갑 선거구는 오는 4~6일 현역인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구를 선거구는 오는 7~8일 김경만(비례) 의원과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간 3인 경선이 진행된다. 다만, 서구를 선거구는 현역 지역구 의원이 없기 때문에 100% 국민경선으로 치러지며, 결선 투표도 없다.

서구 갑은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의 2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재심위원회가 박해자 전 의원의 재심 요구를 인용해 3인 경선으로 반복했지만, 최고위가 재심위 요청을 기각하면서 결국은 2인 경선이 확정됐다. 경선은 3월10일~12일 국민참여경선(당원 50%+여론조사 50%)으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북구갑 선거구와 동남을 선거구에서는 불법 경선에 대한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10개 선거구는 현역 단수공천 1곳(담양·함평·영광·장성)과 여성전략공천(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으로 각각 확정됐다.

민주당 재심위는 상대 예비후보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현역 이개호 의원과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3인 경선을 결정했으나 최고위는 재심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이개호 의원 단수공천을 의결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에는 여성 몫으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돼 현역 서동용 의원이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민주당 광주·전남 대진표	
■ 광주	
동남갑 (후보 선정)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동남을 (후보 선정)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서구갑 (2인 경선)	송갑석 의원,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서구를 (3인 경선)	김경만(비례) 의원,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100% 국민경선 (결선 투표 없음)
북구갑 (후보 선정)	정준호 변호사
북구를 (후보 선정)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광산갑 (2인 경선)	이용빈 의원, 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
광산을 (후보 선정)	민형배 의원
■ 전남	
목포 (2인 경선)	김원이 의원, 배중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여수갑 (2인 경선)	주철현 의원, 이용주 전 의원
여수을 (2인 경선)	김희재 의원, 조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순천·광양·곡성·구례갑 (2인 경선)	손훈모 변호사, 김문수 민주당 당대표 특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전략 공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나주·화순 (3인 경선)	신정훈 의원, 손금주 전 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 (결선 투표 있음)
담양·함평·영광·장성 (단수 공천)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고흥·보성·장흥·강진 (2인 경선)	김승남 의원,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해남·완도·진도 (2인 경선)	윤재갑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영암·무안·신안 (3인 경선)	서삼석 의원,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결선 투표 있음)

다른 선거구들은 2인 또는 3인 경선을 치른다. 목포 선거구는 현역인 김원이 국회의원과 배중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간 2인 경선이 치러지며,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현역인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맞붙는다. 경선은 10일부터 12일까지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

여수 갑 선거구는 현역인 주철현 의원과 이용주 전 의원 간 경선을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본선에 이어 민주당 경선에서 또 한번 리턴 매치를 벌여지게 됐다.

여수 을 선거구는 현역인 김희재 의원과 조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민주당 공천장을 놓고 치열한 경선을 벌이게 됐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은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현역인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 지역구가 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민주당 당 대표 특보가 경쟁한다.

나주·화순 선거구는 현역인 신정훈 의원과 손금주 전 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 간 경선으로 치러지며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현역인 윤재갑 의원과 박지원 전 원장 간 2인 경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애초 민주당 안팎에서 '올드보이'들의 공천 배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박 전 원장은 경선 기회를 보장받아 5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최근까지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다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는 3선을 노리는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간 3인 경선이 치러진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도 치러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5곳 중 4곳 현역 의원 경선 탈락 교체 바람 전남에도 불까 초미의 관심

민주당 전남지역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후보자들이 정해지면서 조만간 치러질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텃밭인 전남에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미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된 광주지역에서 5개 선거구 중 현역 의원 4명이 탈락하는 '현역 교체' 바람이 거세게 분 만큼 전남지역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발표로 전남 10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

특히 현역인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현역 의원(서동용)이 컷오프된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 이개호 정책위 의장으로 단수공천이 확정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를 제외한 7개 선거구는 모두 현역 의원과의 경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현역들의 생환 여부가 관심거리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경우 현역인 윤재갑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간 맞대결로 민주당 공천 후보자가 정해진다. 민주당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올드보이'들의 공천 배제론을 놓고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는 점에서 박 전 원장의 5선 성공 가능성이 중앙 정치권 최고의 이슈가 됐다.

여수 갑 선거구는 현역인 주철현 의원과 이용주 전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사실상 리턴 매치를 벌이

게 돼 후보뿐 아니라 지지자들 간 경쟁도 치열하다. 이들 후보들은 주 의원이 이용주 전 의원 측 캠프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가 하면, 고소를 남발하지 말라며 맞서는 등 경선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수 을 선거구도 현역인 김희재 의원과 조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간 경쟁 구도가 짜여졌다.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던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는 국회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을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이겨낼 지가 관심사다. 특히 제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도 치러지는 만큼 지난 선거에서 76%가 넘는 지지율로 재선을 했던 서 의원의 과반 득표를 막을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나주·화순 선거구는 현역인 신정훈 의원과 손금주 전 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 간 경선으로 치러지며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신 의원에 맞서 손 전 의원과 구 전 군수 간 연합 여부도 지켜볼 만하다.

현역인 김원이 국회의원과 배중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간 경선이 치러지는 목포, 현역인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간 맞대결이 벌어지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도 현역의 수성이나, 현역 물갈이나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5선' 도전에 성공할까

초선과 신인의 '보완제' 역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올드보이'(OB)로 꼽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상임고문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5선' 성공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전 원장과 정 고문을 당 현역 의원들과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현역인 윤재갑 의원과 정 상임고문은 전북 전주에서 현역 김성주의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를 두고 '새 술 새 부대론'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발언과 모순된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초선과 정치 신인의 수가 많은 민주당의 특성을 감안한 보완 성격의 조치라는 분석이 강하다.

민주당 안팎에서 '올드보이' 공천 배제를 두고 격론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경선 기회를 준 배경에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며 '투쟁력'을 보여준 데다 당내 계파 갈등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적극 연호'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전 원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윤석열-김건희-김철 정권이 물 쪼서 키우는 새순"이라며 '올드보이'론을 일축하며 총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당내 계파 갈등 과정에서 "이 대표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 고문은 이 대표를 정자권에 입문시킨 오랜 인연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정 고문 캠프에서 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 당시 탈락했던 정 고문은 2022년 이 대표의 요청으로 복당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비례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운영역·백승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이 3일 창당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민주당 운영역 의원과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백승아 전 교사를 공동 대표로 선출했다.

창당대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시민사회 대표인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참석해 각각 축하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지할 예정이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시민사회 대표 격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낸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울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